# '23만명 청원' 일베 사이트 폐쇄될까

#### 5·18 왜곡하고 가짜뉴스 양산 비난 폭주…정부 답변 '관심'

5·18민주화운동과 전라도 비방의 온상으로 지목 받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www.ilbe.com)가 폐쇄될지 주목된다.

일베를 '사회의 악'(惡)으로 규정한 한 시민이 청 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사이트 폐쇄를 요청 했고 지난달 24일 청원 마감 전까지 국민 23만5167 명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일베 폐쇄 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 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1월 25일 청 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 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거론된 사이트(일베)는 정치·사회적 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 를 공유함은 물론 비하어와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들을 게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연령대 상관 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통해 고 (故)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와 합성한 영상을 유포 하고 일베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국격을 무너트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의 글에는 언급돼 있지 않지만 일베는 수 년 동안 5·18을 왜곡하고 전라도 폄하 등 지역 감정 을 조장하는 공간으로 지목돼 왔다.

일베 회원들이 익명에 기대 전라도와 광주 시민, '5·18' 피해자 등을 '홍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헐 뜯는가 하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반란'으로 왜곡하는 게시물을 집요하게 생산해왔기 때문이 다. 법적·사회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한 5·18에 대해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허위 주장을 담 은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기도 했다.

반면 유혈진압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 장군님', '전 전 대통령님'으 로 칭송하는 등 상식 밖 행태를 보여왔다.

이날 현재도 일베 게시판에는 '전장군님 사진 불 태우는 홍어새끼들'이라는 제목 아래 광주 시민들 이 전 전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는 모습을 담은 사진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일베에서 생산된 5·18 왜곡·폄훼의 글이 인터넷을 매개로 확산하면서 일 부 국민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 우도 있다. 말 그대로 5·18 왜곡의 온상"이라며 "정 부에서 이번 국민 청원을 계기로 일베를 비롯한 5. 18 왜곡세력을 엄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교육청, 무기계약직 210명 공채

#### 급식 조리사·특수교육실무사 등 10개 직종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급식 조리사, 특수교육실 무사 등 10개 직종 210명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공개채용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채용공고 게시판에 공고했 다. 채용예정 인원은 총 210명이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국어·일반상식)을 치르 는 직종과 채용예정 인원은 조리사 27명, 교무실 무사 4명, 과학실무사 5명, 특수교육실무사 1명, 교육복지사 1호, 특수학교 돌봄교실강사 1명, 돌

봄전담사 3명, 시간제 돌봄전담사 7명 등 60명이 다. 4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를 접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시험 공고일(2018년 3월22일) 전일(前日)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 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시로 돼있는 사 람이다. 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채용공고'란에 게 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교육청 재정지원과 (062-380-4168)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훈련병들에 커피한잔의 여유를 육군 31사단, 카페 트럭 운영

자칫 삭막할 수 있는 군부대 내에 주차된 트럭 에서 하얀 증기와 함께 고소한 커피 향이 퍼지고, 눈을 감으며 귓가에는 은은한 음악이 스친다.

22일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는 '치유와 회복 카페 트럭 기증식'이 열렸다.

'치유와 회복 카페 트럭'은 해안 소초, 유격훈 련장, 훈련병 입소식 현장 등을 찾아 장병에게 따 뜻한 커피와 빵을 제공할 예정이다.

31사단장 권삼 소장은 "장병들이 카페 트럭을 통해 커피와 빵을 나누고 음악을 들으며 잠시나 마 군 생활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병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조선대 '근로자건강센터' 계속 운영

조선대가 직원 재계약 문제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계속 운영하기로

조선대는 22일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경우 고용 부담이 예측되지만, 지역 근로자 건강을 위하고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공헌을 위해 센터를 지 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2012년 광주근로자건강센 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3년씩 위탁 계약을 연장 했다. 지난해 12월 재공모에서 최종 사업 대상자로 다시 선정돼 2020년까지 센터 운영을 맡게 됐다.

하지만 센터 직원 10명 가운데 근로 기간이 2년 을 초과한 직원 7명의 고용 기간이 장기화하면 고 용승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조선대가 이들 직원과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센터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봄…봄… 봄이 왔어요

에 평균 1만원선에 거래된다.

22일 나주시 노안면 미나리 재배단지에서 농민들이 돌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향과 맛이 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안 돌미나리는 한 박스(4kg)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봄 기운 완연한 주말…미세먼지 '한때 나쁨'

'반짝 추위'가 물러감에 따라 이번 주말 광주·전 남지역은 봄기운이 완연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인근 에서 따뜻한 고기압이 한반도로 내려와 광주·전남 지역은 이번 주말까지 쾌청한 날씨가 지속할 것으

하지만, 23일과 24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에 서 영상 6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고 일교차도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말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겠다"고 말



